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안학교미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등미술 프로그램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혜 원

대안학교미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등미술 프로그램 연구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 년 11 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혜 원

인 준 서

김혜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교육은 이 같은 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21세기를 세계화, 정보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지금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에게 지금과 같은 수단적, 목적적인 교육이 계속된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이상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반 중등학교에서는 개개인의 적성이나 개성, 특성에 관한 적성검사를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함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적성검사 역시 모든 학교에서 대 인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 검사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표준화된 검사지와 표준화된 처리작업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표준화된 틀에 끼워 맞추게 한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게는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탈피하기 위한 ‘빨리빨리’를 내세운 고속 성장이 요구되었다. 고속성장의 목적은 경제의 발전이다. 이러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수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교라는 제도가 주축이 되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보다는 그 시대에 맞는 우수 인력을 양성해 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은 경제적인 면으로는 급격한 발달을 가져다주었지만 교육적인 면으로는 지위상승을 위한 경쟁체제 속으로 학생들을 내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학생끼리의 협동보다는 과도

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로 경쟁위주의 입시체제로 인한 2005년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대대적인 부정행위 적발을 들 수 있다. 결국, 현재의 학교가 수능 위주의 지식교과 중심에 치우치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었다.

21세기 시각문화중심의 세계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미술교육은 밀거름을 제대로 주지 못한 토양 위에서 주지교과에 밀려 위축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화교육의 부재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7차 교육과정은 이 같은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과 창의성, 심미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술의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술교육자들은 아직도 미술교육이 사회나 학교 등의 여건에 의해 표현위주의 편중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교육을 반대하며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들어서부터 등장한 대안학교는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대안학교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나 국가의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들을 탐색해 보고 일반 중등학교에서의 미술수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술활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현재 일반중등학교의 미술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대안학교 미술프로그램을 탐색,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부분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미술이 교육으로서 지니는 당위성과 그를 통한 교육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실제 일반 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교육과의 괴리 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둘째, 일반 중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지니고 있는 대안학교의 등장 요인과 각각의 대안학교에서 나타나는 유형과 교육과정의 특색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셋째, 대안학교가 지니는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미술교육의 특성과 여러 대안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넷째, 일반 중등학교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미술수업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미술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일반 중등학교 미술교육이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 하였다. 또한 미술교육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3

II. 중등학교 미술 교육의 실태

1. 미술교육의 의의 및 목적 ————— 5
2.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방향 ————— 7
3. 중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위치와 문제점 ————— 9

III. 대안학교의 교육방안

1.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 15
2. 대안학교의 유형 및 교육과정의 성격 ————— 17

IV. 대안학교에서의 미술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1. 달구벌 고등학교 ————— 22
2. 지평선 중학교 ————— 27
3. 스스로 미디어 스쿨 ————— 33
4. 마리학교 ————— 35
5. 제천 간디학교 ————— 38

V. 중등학교에서의 대안학교 미술 프로그램 활용 방안

1. 직접 체험을 통한 감상교육 ————— 45
2. 미술관 관람을 통한 시각 확장 교육 ————— 5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미술교과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수업시수 변화	9
<표-2> 달구벌 고등학교 2006학년도 2학기 -1학년-	23
<표-3> 달구벌 고등학교 2006학년도 2학기 -2학년-	24
<표-4> 달구벌 고등학교 2006년도 2학기 목조건축학습지도	26
<표-5> 지평선 중학교 2006학년도 -1학년-	29
<표-6> 지평선 중학교 2006학년도 -2학년-	30
<표-7> 지평선 중학교 2006학년도 -3학년-	32
<표-8> 스스로 미디어 스쿨 2006학년도 2학기 수업일정	34
<표-9> 마리학교 2006학년도 1학기 교육계획표 수업 진행 계획표	38
<표-10>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2학기 주별 회화, 감상 수업계획서 중학교 1, 2, 3 학년	40
<표-11>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2학기 1, 2, 3학년 창작. 전통공예	40
<표-12>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1학기 주별 수업내용 -1, 2, 3 학년-	42
<표-13>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2학기 주별 수업내용 -1, 2, 3 학년-	4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미술과 교육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말로 집약된다. 미술이 인간의 자아표현 수단인 하나라면 미술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인간 내면의 표현을 통한 자아 개발, 자아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성장, 자기실현의 교육으로 진다. 즉, 미술교육이란 ‘정서와 창의성의 신장을 통한 조화의 길’인 것이다.¹⁾

미술교과는 급 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창의적인, 감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룬 전인적인 인간의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술교육과정은 이러한 미술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미술이 창조적 인간을 길러내는데 실패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지나치게 적은 수업시수의 배당으로 인해 수업이 단절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학 진학만을 유일한 목표로 두고 학생 자신의 특성이나 개성, 적성과는 상관없이 대학 진학을 위한 구조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미술교과를 정서와 창의성의 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신 성적을 위한 하나의 교과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는 시각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의 지형을 하루하루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미술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전통적 표현위주의 기능학습만을 쫓아 기술로서의 미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예술 고등학교와 특수목적학교들이

1) 김정희외 6인(2003).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p.16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미술의 창조적 교육을 위한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창조성 교육을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모든 학교 안에서 미술교육이 주변 교과로 인식되기보다 학생들이 미술학습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융통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술 교육을 위해 교육행정 당장의 입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미술 교육이 먼저 교육의 위기를 발판삼아 당당히 일어나고 미술교육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요구나 시대와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조화로운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미술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미술교육의 변화에 도움이 되고자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참여적인 미술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축을 대안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교육에 두었다. 대안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대안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는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과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 교육과의 괴리 점을 살펴보고 대안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조사를 통해 현재 중등학교 미술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고 미술교육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미술교육이 추구하는 본질과 현재 진행되는 실제적 교육과정과의 괴리를 발견하여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함으로써 중등학교 미술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지닌다.

둘째, 대안학교의 등장 배경과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 진행하는 교육프로

그램을 수집, 조사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견하도록 한다.

셋째, 대안학교의 다양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분석을 통해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 학교 미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의 제시를 통해 보다 더 참여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창의성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술교육을 정립해 나가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반적으로 문헌 연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안학교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전문 서적, 인터넷, 신문이나 간행물 등의 언론 정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안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학교의 미술 교과 담당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연구, 조사 하였다.

II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미술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술 교육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 여러 전문 서적을 통해 조사하고 실제 중등학교에서의 미술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III장에서는, 현재 일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학교 밖의 학교라는 타이틀로 등장한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등장배경과 유형, 성격 등에 대해 여러 전문 서적을 통해 조사하였다.

IV장에서는, 대안학교를 크게 인가 학교와 비인가 학교로 구분하였다.

-인가학교: 달구벌 고등학교, 지평선 중학교, 스스로 넷 미디어 스쿨

-비인가 학교: 마리학교, 제천 간디학교

각각의 학교에서의 미술 교육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달구벌 고등학교와 지평선 중학교, 마리 학교는 메일 또는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를 통해, 스스로 넷 미디어 스쿨과 제천 간디 학교는 언론매체와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V장에서는, IV장에서 조사한 다양한 대안학교 미술 교육의 특성을 활용 하여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그에 대한 간단한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술교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며, 시각적으로도 쾌적감을 느끼도록 하여 정서 순화와 미적 안목을 육성한다. 이러한 미술의 본질은 시대나 사회, 교육의 기본적인 바탕의 체제가 변한다고 해도 불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활동을 통해 즐거운 미술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자아실현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창조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교육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일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 교육과정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현재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

1. 미술교육의 의의 및 목적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지닌 개인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관심, 흥미, 요구 등 자신을 표출해 내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 즉,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통한 지적 능력보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주변 환경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재창조 하는 사고의 응용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상적으로 중등학교의 미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계속되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²⁾ 현재 10대들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아개념, 자신의 실체에 대한 혼란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은 누구인가?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미술은 이러한 시기를 겪는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존중하며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술은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생활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인간 가능성의 최대치를 이끌어내어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인간 형성의 과정이라면, 미술 교육은 아동에게 조형적인 창조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한 창작의 기쁨을 알게 하여 풍부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미술교육은 한 인간이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며 미적으로 자신을 발전

2) 로웬펠트,브리테인(2004).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 교육연구회. 미진사 p.252

시켜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기 체험으로 확장하고, 미적인 자기 교육의 힘을 육성하여 나아가 스스로 미적 인간 실현으로서의 자기 성장을 돕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³⁾

미술교육의 목적은 첫째로 미적안목의 육성이다. 21세기의 사회는 정보화 시대이다. 수없이 쏟아지는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 필요하고 즐길 수 있는 정보와 문화를 선택하고 분별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학교 교육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안목 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안목은 “미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다. 이러한 미적 안목은 식별력, 분별력 즉 가치 판단을 동반한다. 미적 가치 판단에 의해 미의식이 형성된 후 우리의 생활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것이 표현이라는 기교를 통해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서 미술은 가능해진다.

둘째, 조형능력의 함양이다. 우리는 흔히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 대상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형 능력이란 대상을 보고 그대로 묘사해 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고 느낀 점을 표현하거나 특정부분을 강조시키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 하는 등의 학생들의 내면적인 감정이 표현되는 활동으로 눈과 머리와 손이 함께 표현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을 만들 수 있는 힘”, “내면의 세계를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⁴⁾

셋째, 창의성의 계발이다. 창의성은 생산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에 의한 새

3) 김정희외 6인' 전개서

4) 이규선의 5인.(2005)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38

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활동에 새로운 것을 보태고 조직화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미술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기계 만능주의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현대의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고 차원적인 사고력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해준다. 이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며 각각의 모든 학생들의 기질이나 성품에 따라서 다른 특성으로 나타나 개개인에게 개성과 독창성을 부여해 준다.

넷째, 감성의 함양이다. 감성은 특정 느낌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감정의 능력’으로 통증이나 쾌감, 공포감 같은 특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 감성의 함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 이는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인생의 구경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상살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위와 같이 미술교육은 미적 안목, 조형능력, 창의성뿐만 아니라 여러 감성지능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2. 7차 미술과 교육의 방향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

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⁵⁾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편성 방침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 1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있으며 학교 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용의 계열성과 위계성, 통합성을 고려하고 있다. 중학교 1, 2, 3학년은 7, 8, 9학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10학년으로서 7, 8, 9, 10학년 이라는 일관된 내용 체계를 통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살리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미술 교육에서는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 는 교육이념을 추구하면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육과, 능력에 따른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의 과정이 이에 속하며 고등학교 2, 3학년은 11, 12학년으로써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확대 도입을 통해 학교, 학습자, 지역 사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선택 및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2, 3학년시기에 미술을 선택하는 학생은 <미술과 생활>을 이수하며 심화 선택 과목에 미술이론, 미술 실기가 포함된다.⁶⁾

<미술과 생활>과 <미술>은 “미술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 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미술과 생활>은 <미술>교과와 같이 기본적인 미술 교과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일반 교양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 p.144

6)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 p.3

둘째, 미술을 전공할 학생뿐 아니라 미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조예를 깊게 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10년 이라는 기간동안 충족되지 못한 미술에 대한 욕구와 생활에서 미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미술>과 <미술과 생활>의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 6차 미술과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업시수가 조정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미술교과의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수업시수 변화⁸⁾

학교 급별 학 년	중학교			고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12학년
제 6차 교육과정	2시간	1~2시간	1~2시간	미술 I (4단위) 미술 II (4단위)	
제 7차 교육과정	1시간	1시간	2시간	2단위	선택과목 ⁷⁾

위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수업시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선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3. 중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위치와 문제점

2003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발표⁹⁾는 미술과를 비롯한 음악, 체육의 평가문제를 사교육비와 연계시키면서 교과외 위상과 명예를 여지없이 추락 시켰

7) 일반 선택과목으로 미술과 생활(4단위), 심화 선택과목으로 미술이론, 미술 실기(4단위 이상)

8) 교육부 고시 1997-15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 교육인적 자원부. p.145

9)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4월 9일 2003년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예술체육과목 평가방식을 서열식이 아닌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으며 학교교육에서 내신 미반영, 미래에는 필수 교과로서 퇴출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많은 학자들과 교육 관련 분야의 사람들은 미술이라는 과목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 시키고, 정서를 순화 시키며,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할 수 있는 교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교육에서 미술 교육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않다. 계열성, 위계성, 통합성을 살리기 위해 중학교 1, 2, 3과 고등학교1학년은 7, 8, 9, 10학년으로 체계화 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수업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든 수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2시간이라는 수업시간에 미술 활동을 해오다가 중학교에 올라와 갑자기 줄어든 수업시간에 미술 활동을 끝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현대 미술 조류의 다양성에 따라 더욱 심화, 발전된 학습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업 시수는 이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1시간이라는 수업시간에 적응한 뒤, 2년을 지나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다시 미술 수업은 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미술이 다시 1시간(2단위)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을 6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미술교과가 중학교에서는 약 30%, 고등학교에서는 50%정도 줄어든 수업시수와,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 교과로 변화되었다. 즉, 현재의 미술교과는 7차에서 강조하는 이해, 감상, 평가의 통합적 학습을 통한 심미적 인간의 형성을 짧은 시간 안에, 10년 전과 다를바 없는 좁은 교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줄어드는 수업시수는 미술교과로 하여금 학생들이 외면하는 교과로서의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우리는 주변의 일반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대한 시간배정을 통해 음악·미술, 또는 체육·미술 식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에

서 임의적으로 정한 수업배정으로 음악과 미술, 또는 체육과 미술이라는 각각의 두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미술 교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대학 진학 또는 학력을 통한 지위 상승보다 아래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지교과 수업시수의 확보를 위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 교과의 전반적인 수업 시수가 줄어들면서 오늘날 중등 미술 교사들은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다른 과목을 맡아 가르친다거나, 이웃학교 미술교과를 담당하여 A학교 미술수업이 있을 때에는 A학교선생님으로, B학교에 미술수업이 있을 때에는 B학교 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선생님이 하여금 한 학교에 있지 못하는 떠돌이 선생님이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미술에 대해 표현방법상이나 이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즉시 물어보지 못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진귀한 광경을 낳게 하였다. 이런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어느 누가 미술이라는 과목에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 다행히 사명감 있는 교장이 있는 학교에서 법정 시간에 맞게 미술 수업이 진행 된다고 하여도 중학교의 경우 1, 2학년 미술수업의 단위 수는 1시간 즉, 45분이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출석체크와 표현하고자 하는 수업에 대한 동기화 과정, 또는 전 시간 수업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면 30분 남짓 남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법정 시간에 짜여진 미술 수업이라고 해도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가 계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과 단절을 거듭한 끝에 하나의 제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묻혀 가는 미술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업 시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대학입시의 병폐이다. 입시가 시험으로, 그것도 지필 검사로 치러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에서는 도덕적 습관이나 예술적 표현의 행위 같은 가치나 질적인 차원은 다룰 수가 없게 된다. 즉, 미술과 같은 예술교과는 보류되고 무시되어, 끝내는 배제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미술을 전공할 청소년을 선발하는 미술대학의 입시를 제외한 정규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교육은 왜곡되어 있다. 그 원인은 ‘미술’이 시험을 위해 나타나는 ‘단편적, 외곽적, 부수적 관련 지식’ 중심으로 변질돼 버린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술을 위한 미술도, 문화를 위한 미술도, 더구나 인성과 창의성을 위한 미술은 더욱 아닌 미술이 학교 교육과정을 점령해 버린 것이다.¹⁰⁾ 이러한 단적인 예는 실생활의 TV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다. ‘000 미술교실’, ‘000 미술’ 등의 선전은 물고기를 쉽게 그리는 방법, 꽃을 그리는 방법 등에 대해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미술 교육의 실정인 것이다.

셋째, 미술교사의 ‘창의적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이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은 일부 미술 교사들로 하여금 과제만을 제시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임하는 소극적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사 자신의 교육에 대한 의욕의 저하는 교사 자신의 전공 중심에 편중된 학습 활동이나 손쉬운 소일 학습으로 진행 시키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창의성을 학습자 내면에 있는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성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인식하여 다른 작품의 감상을 거부한다. 또한 성인의 개입과 관여가 없는 방임적 지도의 상황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만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런 지도 없는 미술 교육은 학생을 도식적인 표현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창의성은 기존 작품에 대한 적당한 감상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10) 김춘일(2002), 중등미술 교육론, 교육과학사, p.402

지도,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발상을 통해 길러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미술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방과 개념에 치중한 실기 중심교육’이라는 것이다. 창의력을 무시하고 성행하는 경향의 그림을 모방 답습하거나 기술적인 기교에 가치를 두는 교육 즉, 기능 중심의 교육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미술 대학 입시의 석고 테생과 정물화의 묘사에 비중을 두는 방식에서 완전히 일탈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중등학교 미술 교육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¹¹⁾

이처럼 우리 미술교육 과정은 각종 기법과 표현력 습득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적인 습득을 통한 표현은 성적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성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상황에서의 자율적인 자기표현이 아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표현력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성의 성격을 지닌 보편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 한국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미술 교육이 다른 과목들과 함께 보편성이 추구하는 적정 수준의 정도로 묻히게 됨에 따라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단지 성적을 위한, 상대적 서열을 위한 점수로서의 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보편성과 결과평등의 중시는 미술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학습자의 개별성이 아닌 획일적 수업이라는 역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 7차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목표¹²⁾와 점차 유리되어 지면서 미술교육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더 이상의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획일적인 교육에 반기를 들고 학교 밖의 학교라는 타이틀로 등장한 것이 대안학교이다. 대안학교에서는 미술 교육이 그 동안 지녔던 주변 교과로서의 인식을 변화 시켜

11) 김영호(2004). 예술교육이 미래를 연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p.61-62

12) 미술과의 목표 :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미술 교육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있다. 이는 비단 미술 교육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도 단순히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수업의 주체자가 되어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즉, 필수 과목의 최소화,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 현장학습 체험을 통한 진로의 탐색, 최소인원의 반 편성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참여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대안학교의 교육방안

1.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20세기 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보편화된 근대 제도교육이 사회 평등의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인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공교육제도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개인의 다양성보다는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으로 진행되어 근본적으로 교육적 소외와 비인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 제도교육에 대한 반성적 인식과 사고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허상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다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찾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대안교육운동도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제도교육의 모순과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과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대안교육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교교육이 지배세력의 재 생산도구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때였으며, 대안교육의 형태와 방법을 모색하는 이론이 많이 수입되고 제창되었다. 이 이론들은 학교의 비인간적인 분위기와 학교교육의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으로 인해 하층아동의 교육적 소외, 학교교육의 외세 종속성과 식민화에 대한 비판. 그것을 극복하는 비판의식과 저항의식을 고양하는 비판적 입문서들로부터 시작되었다.¹³⁾ 즉, 학생들을 입시위주의 극한 경쟁으로 내몰아

13) 심성보(1998).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서울 : 내일을 여는책 p.208

공격성과 파탄을 키우는 교육, 일상생활과는 상관없는 단순 나열의 글자만을 가득 채워 넣는 인지 위주의 교육, 차별과 억압과 분열, 파괴만을 조장시키는 비인간적인 교육이 좀처럼 교육적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교육의 꿈을 꿀 틈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발로써 대안교육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교육의 명확한 개념 정의는 힘들지만 현실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안교육이 실천되고 있다. 이미 열한 개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미인가 대안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1999년에 6월에는 '대안학교협의회'가 구성되어 대안교육 연구, 대안학교 교사 양성 및 연수, 대안학교 설립 지원 및 협의, 기타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안 넷(www.daean.net)' 등 대안교육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이러한 대안 교육의 현실적인 움직임에 주목해 대안교육을 정의하자면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운동가를 중심으로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실천이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실천이 학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¹⁴⁾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노력을 거듭해온 끝에 현재에 와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곳'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찾아 스스로 선택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학업성적만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며 나아가 학생 자체를 평가하는 획일화된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은 자신 또는 자녀의 명문대학

14) 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출판사. p.19

입학을 인생목표로 두지 않는다. 단순 지식의 주입식,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찾아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으로서 대안학교를 원하고 있다.

즉, 대안교육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문명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대안학교는 제도 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을 고수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비해 새로운 교육의 시각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사회는 대안교육운동으로 인해 폐쇄적이고 형식화 되어 있던 학교를 대신하여 자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제도 교육보다 훨씬 다양하고 친근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오게 하였다.¹⁵⁾

2. 대안학교의 유형 및 교육과정의 성격

1) 자유학교형 대안학교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이러한 유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섬머힐 학교의 주된 목적은 종래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 억압하면서 교사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선택과 무한한 가능성에 기초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안학교는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에 미국에서 붐을 이루었다. 자유학교의 특징은 거의 모든 대안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가 형태로 운영되던 초기의 간디학교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5) 이진만, 박진환(2002). Paulo Freire와 대안학교의 교육사상 탐구. 문음사p.94

2) 생태학교형 대안학교

이유형의 전형은 1982년에 설립된 영국 하트랜드 지방의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 태생의 평화 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사티쉬 쿠마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그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들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학교는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 80년대 이후 환경 위기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영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개교한 간디청소년학교를 비롯해 푸른 꿈 고등학교, 실상사 작은 학교, 변상공동체학교들이 교육이념이나 방식에서는 비교적 유사하다고 하겠다. 형태나 운영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 학교가 지향하는 생태주의이념과 의식주 해결과 연관된 노작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대안학교의 필수 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다.

3) 재 적응학교형 대안학교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형태이다,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지 고등학교는 주로 일반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헌신적인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 가운데 성지고등학교, 화랑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들이 이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

앞의 세 유형은 대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비교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매우 독특한 교육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이다.

발도르프 학교는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반으로 191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6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학전 교육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과정을 운영하며, 수업방식이나 학급 운영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¹⁶⁾

이처럼 대안교육은 그 구체적인 실천 양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대안교육은 매우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곧, 아이들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중시한다. 경쟁을 본질로 하는 기존의 개인주의는 현대 사회를 삭막하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 교육은 공동체 생활들 통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때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안교육은 생명존중 사상 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 관계 또는 ‘나-그것’의 관계를 공존적 관계 또는 ‘나-너’의 관계로 회복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

셋째, 대안교육은 노작 교육을 중시한다. 일과 놀이와 공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많은 대안학교들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자체 노동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놀이이기도 하고 사회적 협동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대안교육은 공통적으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 학

16) 이종태(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pp.120-122

생과 학생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한 것으로 이는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인격이 충분히 존중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작은 집단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거의 모든 대안학교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⁷⁾ 이는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직접 연관되고 학생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상적인 관계는 학교가 지역의 문화적 중심체로서 학교에게 지역사회는 학습의 풍부한 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점을 지닌 대안교육은 교육과정에서 그 성격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대안학교가 학교형태인가, 아니면 계절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형태는 대부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형태는 또 다시 인가학교와 비인가 학교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 중 인가 학교는 국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로서 여타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본교육과정은 다 이수해야 한다. 인가학교는 학생이 졸업 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바로 수능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교육청으로부터 제정지원을 받으며 또한 각종 시설지원 등의 장점을 지닌다. 어찌 보면 비인가 보다는 안정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는 비인가 보다는 제약이 많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요구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와 비슷하지만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보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협동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 IV장의 정규학교 형태인 달구벌 고등학교와 지평선 중

17) 이종태. 상계서. pp.35-37

학교, 스스로 넷 미디어 스쿨에서 진행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형태의 또 다른 하나인 비인가 학교는 정규 학교와는 반대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며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가형 학교에 비해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학교 내, 외의 모든 곳에서의 교육진행을 추구함과 동시에 무한한 자율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IV장의 비인가 학교인 마리 학교와 제천 간디학교의 미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계절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비인가)되는 대안학교들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나 기간, 장소나 여건에 따라 주제와 운영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마다 나타나며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IV. 대안학교에서의 미술 교육의

현황 및 프로그램

1. 달구벌 고등학교

2004년 대구에서 문을 연 학교로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는 인문계 사립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입시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특기나 개성을 살리는 전인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공통기본교과는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특성화 교과(약 120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 학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성화 교과비는 한달에 약 12만원정도 따로 받고 있다.) 진행되는 미술 프로그램이 학교의 시설과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진행되지만, 여건이 안되면 외부에 위탁 교육을 의뢰해서 진행이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수업 6교시가 끝나면 7, 8교시를 특성화 과목을 운영하며 월요일은 풍물, 요가, 화요일은 목공, 제과·제빵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달구벌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께서는 여러 특성화 교과 중, 목공 및 공예 등을 담당하고 계신다.

달구벌 고등학교의 미술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와는 달리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통나무 정자 짓기, 야외용 탁자 만들기, 평상 만들기 등의 목재를 주재료로 한 미술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크기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정자나 탁자 등을 미술 수업시간에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독특할 만하다. 이는 미술활동이 단지 수업시간에만 진행되고 끝나는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만든 것을 졸업한 후에도 마치, 졸업 작품처럼 학교의 공원 및 쉼터로 영원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순한 실용적인 목적에서의 정자나 탁자의 제작이 아닌 학교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학교와 조형물, 공간과 조형물, 사람과 조형물에 대한 관계이해를 목적으로 수업계획이 이루어져 있다.

특성화 교과로 진행되는 공예 수업은 도자, 목공, 비즈, 지점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현재보다 저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달구별 고등학교 미술 프로그램

목표- 미술과목은 단순히 실기활동이 아니라 주변을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수업을 통하여 좀 더 종합적인 시각과 조형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적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표-2> 달구별 고등학교 미술프로그램 운영계획

2006학년도 2학기 -1학년-

주	월 일	단 원	시수	비 고
1	8.21-8.26	미술치료(자유화)	2	
2	8.28-9.2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	2	
3	9.4-9.9	콜라주-자유롭게 표현하기	2	주 5일 휴무(9.9)
4	9.11-9.16	미술치료(풍경 구성법)	2	9.12(화) 토요일 수업 2회
5	9.18-9.23	통나무 정자 짓기1	2	주 5일 휴무(9.23)
6	9.25-9.30	통나무 정자 짓기2	2	9.25-27 3학년 중간고사
7	10.2-10.7		2	10.2(화) 토요일 수업 2회 10.3 개천절, 10.4 가정학습, 10.5-7 추석연휴
8	10.9-10.14	통나무 정자 짓기3	2	주 5일 휴무(10.14)
9	10.16-10.21	통나무 정자 짓기4	2	10.16-18 1,2학년 중간고사
10	10.23-10.28	통나무 정자 짓기5	2	

11	10.30-11.4		2	주 5일 휴무(11.4) 신입생 전형일(11.3)
12	11.6-11.11	통나무 정자 짓기6	2	11.6 개교 기념일, 주 5일 휴무(11.11)
13	11.13-11.18	통나무 정자 짓기7	2	11.15 수업교환(목 1-8교시) 11.16 2006 수능일 (3학년)
14	11.20-11.25	통나무 정자 짓기8	2	11.20-23 3학년 기말고사 주 5일 휴무(11.25)
15	11.27-12.2	통나무 정자 짓기9	2	
16	12.4-12.9	완공식	2	주 5일 휴무(12.9)
17	12.11-12.16		2	12.13-16 1,2학년 기말고사
18	12.18-23	행복한, 슬픈, 화난 감정 표현하기	2	주 5일 휴무(12.23)
19	12.25-12.30	가면 만들기	2	12.25 성탄절, 12.26 수업 교환(토 2회) 주 5일 휴무(12.30)
20	2.21(수)-2.24	오리엔테이션	2	2.22 수업교환(월 1-8교시)
21	2.26-28(수)		2	2.28 종업식
합계			34	

2) 달구별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프로그램

목표- 미술과 생활 과목은 단순히 실기활동이 아니라 주변을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과 생활 수업을 통하여 좀 더 종합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조형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적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표-3> 달구별 고등학교 2006학년도 2학기 -2학년-

주	월일	단원	시수	비고
1	8.21-8.26	HTP 그림(진단기법)	2	.
2	8.28-9.2	동적 학교 생활화(진단기법)	2	.
3	9.4-9.9	풍경구성법(진단기법)	2	주 5일 휴무(9.9)

4	9.11-9.16		2	9.12(화) 토요일 수업 2
5	9.18-9.23	다탁 만들기1	2	주 5일 휴무(9.23)
6	9.25-9.30	다탁 만들기2	2	9.25-27 3학년 중간고사
7	10.2-10.7		2	10.2(월) 토요일 수업 2회 10.3 개천절, 10.4 가정학습, 10.5-7 추석연휴
8	10.9-10.14	폐품을 이용한 연필꽂이 만들기	2	주 5일 휴무(10.14)
9	10.16-10.21		2	10.16-18 1,2학년 중간고사
10	10.23-10.28	풍경화 그리기	2	
11	10.30-11.4	전시장 관람1	2	주 5일 휴무(11.4)
12	11.6-11.11	콜라주: 과거, 현재, 미래 모습	2	11.6 개교 기념일, 주 5일 휴무(11.11)
13	11.13-11.18	폐벽돌을 이용한 연못 만들기1	2	11.15 수업교환(목 1-8교시) 11.16 2006 수능일 (3학
14	11.20-11.25	폐벽돌을 이용한 연못 만들기2	2	11.20-23 3학년 기말고사 주 5일 휴무(11.25)
15	11.27-12.2	자화상 그리기	2	
16	12.4-12.9	석고 계란화	2	주 5일 휴무(12.9)
17	12.11-12.16	전시장 관람2	2	12.13-16 1,2학년 기말고사
18	12.18-23	폐품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2	주 5일 휴무(12.23)
19	12.25-12.30		2	12.25 성탄절, 12.26 수업 교환(토 2회) 주 5일 휴무(12.30)
20	2.21(수)-2.24	오리엔테이션	2	2.22 수업교환(월 1-8교시)
21	2.26-28(수)	그림으로 자기 소개하기	2	2.28 종업식
합계			34	

3) 달구벌 고등학교 특성화 교과(목조) 프로그램

특징- 목조건축은 친환경적 소재인 목재를 이용한 건축으로서, 현대의 콘크리트 건축과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목재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건축이며, 재료가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서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종 오염물질과 접하고 공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축방법이라 하겠다.

<표-4> 달구별 고등학교 2006년도 2학기 목조건축학습지도

주	월일	단원	시수	비고
1	8.21-8.26	오리엔테이션	2	
2	8.28-9.2	목조건축 자재의 이해	2	
3	9.4-9.9	목조건축 답사1	2	주 5일 휴무(9.9)
4	9.11-9.16	목조건축 답사2	2	9.12(화) 토요일 수업 2
5	9.18-9.23	목조건축 답사3	2	주 5일 휴무(9.23)
6	9.25-9.30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1	2	9.25-27 3학년 중간고사
7	10.2-10.7	.	2	10.2(월) 토요일 수업 2회 10.3 개천절, 10.4 가정학습, 10.5-7 추석연휴
8	10.9-10.14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2	2	주 5일 휴무(10.14)
9	10.16-10.21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3	2	10.16-18 1,2학년 중간고사
10	10.23-10.28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4	2	
11	10.30-11.4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4	2	주 5일 휴무(11.4)
12	11.6-11.11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5	2	11.6 개교 기념일, 주 5일 휴무(11.11)
13	11.13-11.18		2	11.15 수업교환(목 1-8교시) 11.16 2006 수능일
14	11.20-11.25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6	2	11.20-23 3학년 기말고사 주 5일 휴무(11.25)
15	11.27-12.2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7	2	
16	12.4-12.9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8	2	주 5일 휴무(12.9)
17	12.11-12.16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9	2	12.13-16 1,2학년 기말고사
18	12.18-23	목공실 제작 프로젝트10	2	주 5일 휴무(12.23)
19	12.25-12.30	완공식	2	12.25 성탄절, 12.26 수업 교환(토 2회) 주 5일 휴무(12.30)
20	2.21(수)-2.24	.	2	2.22 수업교환(월 1-8교시)
21	2.26-28(수)	.	2	2.28 종업식
합계			34	

2. 지평선 중학교

지평선 중학교는 2003년 원불교 재단에서 만든 특성화 중학교로 부적응 학생과 함께 대안적인 배움터를 꿈꾸는 아이들을 받고 있다. 원불교 재단에서 만들었지만 종교와는 무관한 학교이다.

지평선 중학교 미술과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보았을 때 미술수업의 전반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美術이란 어원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시각적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익혀야 된다. 이러한 어원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평선중학교의 미술과는 학생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적 철학으로 삼는다.

지평선 중학교의 미술 활동은 재주와 재능을 익히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이 미술을 전공하고자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기에 지평선 중학교에서는 나와 너, 우리에게 대한 텍스트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즉, 사과를 그리는데 있어서 사과를 사과답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모난 상자에 사과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사과의 의미와 이야기가 달라지 듯 사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발견해 내고 그려내는 활동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히스토리에 대한 표현으로 텍스트 읽기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술을 통한 지평선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미술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술을 통해 학생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자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의 교육목표에 부합하여 1학년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의 미술과정”, 2학년은 “알게 된 나, 체험을 통해 생활 속 미술을 익히는 미술과정” 3학년은 “너와 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미술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 된

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오감으로 나와 세상의 소리, 향기, 질감, 움직임, 공간 등의 요소를 체험하게 하며 개념적 가치를 시각적 가치로의 가공 작업을 통해 미술적 자아성립과 표현의 “자력”을 기르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지평선 중학교는 ‘자력’이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미술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알게 하며 체험하고 세상 속에 자신을 보고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표현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성, 개별성, 다양성을 체험하고 체득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평선 중학교의 미술 수업은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로 하여금 왜 사과가 여기에 있는가? 왜 사과의 색은 다양한가? 등의 “왜” 라는 의문점에서부터 수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탐구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지평선 중학교의 미술과 수업은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흐름을 갖는다. 하나는 미술의 전반적인 체험, 가공작업과 또 다른 하나는 “흙내음 역사 이야기”이다. 흙내음 역사이야기는 흙(土), 물(水), 불(火)을 통해 자연을 접하고,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토기(土器), 도기(陶器), 자기(磁器)에 묻어 있는 역사적 이야기를 “사회과와 연계”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수준의 학습으로 각 학년 별로 단계적으로 심화하여 진행된다. 2006년도 도자기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흙내음 역사 이야기’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으며 제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 역시 텍스트 읽기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도자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도자기, 토기, 분청사기, 백자 등을 통하여 옛 도공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도자기의 변천 과정 속에서 장인정신의 혼을 엿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간단한 도자 이론을 통하여 제작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흙이 주는 부드러운 촉감으로 마음속의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지평선 중학

교는 도자기를 제작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장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박물관에 가면 유물 중 70% 이상이 도자기류이다. 유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자기에 대한 교사가 지닌 지식의 전달보다는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학생 스스로 역사 유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물에 숨겨 있는 텍스트 읽기를 스스로 찾아내게 만든다. 예를 들면, 1학년 아이들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까지의 도자기 제작과정을 익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의 밑이 왜 뽀족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미술관, 박물관 관람 시 작품과 유물과의 교감으로 그 속에 묻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교감은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미래의 직업 교육과 사회와 인류에 공헌 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지평선 중학교 미술 프로그램

<표-5> 지평선 중학교 2006학년도 -1학년-

과목 구분	미 술	흙내음 역사 이야기
단위	34 (1)	34 (1)
주제	나를 찾아가는 여행	
풀어가는 주제	미술의 기초에서 나를 찾아 간다.	흙, 물, 불을 통해 나를 찾아 간다.
		시대 선사시대~통일신라
학습목표	미술재료의 기초와 색채에 대해 학습	흙, 물, 불이 갖는 물성을 학습하고 체험
학 습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가 갖는 물성을 체험하기 - 재료에 따른 언어 익히기 - 재료와 나와 관계성을 알아보기 - 색채가 갖는 언어를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 불, 물에 대한 물성 체험 - 그 시대를 이해하고 체험하기(사회) - 각 시대의 기물을 통해 그때의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를 통해 나와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상을 유추하고 체험하기(미술/사회)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재료에 따라 표현 주제를 정해 창작하기 - 색채의 언어에 따라 표현하기 - 색채로 나를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을 이용해 각 시대의 기물 만들기 - 각 시대의 문양을 통해 도구를 가늠해 같은 도구로 문양을 표현하고 문양에 따른 의미를 알아가기(사회/미술)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하기 -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대의 기물과 문양을 통해 생활상을 체험하기 - 기물을 직접 소성함에 따라 생활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알게 된다. - 서로의 기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
기대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재료의 특성을 직접 체험하고 표현함으로써 각 재료의 언어를 인지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적 가치에 맞는 재료의 선택이 기대 된다. - 색채에 대한 언어를 체험하고, 놀이를 통해 접합으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색채의 언어를 중학교 수준에서 읽을 수 있게 된다. - 색채 심리학을 통해 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 갈 수 있었던 지혜를 스스로 체험 한다. - 기물을 만들고, 문양을 그리므로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이해한다. - 스스로 無에서 有을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 자연이 주는 혜택들을 알게 된다.

<표-6> 지평선 중학교 2006학년도 -2학년-

과목	미 술	흙내음 역사 이야기
구분		
단위	34 (1)	34 (1)
주제	알게 된 나, 체험을 통해 생활 속 미술로의 여행	

풀어가는 주제	생활 속 미적요소와 나		고려, 조선시대에 사용된 그릇 만들기	
			시대	고려시대~조선시대
학습목표	생활 속 미술체험과 나 (구상작업)		고려, 조선시대에 사용된 그릇을 통해 선조들과 교감	
학습내용	미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조형물이 자연의 조형미에서 온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와 소통하기. - 생활 속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기, 도기, 자기에 대한 변천사를 통해 각 시대의 생활상과 의미를 체험(사회/미술) - 도자기술 변천의 의미를 상상하여 체험한다. - 도자기 기술이 그 시대에 준 역할을 유추해서 체험한다.(사회/미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생활 속 조형요소와 원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상작업을 통해 표현하기. - 평면, 입체의 특징을 살려 각 주제에 맞게 구상작업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술 변천의 근원인 소성방법의 발달에 대해 체험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표현방법을 익히기 - 각 시대의 도자기에 있는 문양을 표현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하기 -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 구상작업에서 묻어 있는 언어를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과 박물관에 있는 유물에 대해 비교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평가, 이야기하기 	
기대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조형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생활 주변에 있는 조형적 요소를 읽을 수 있고, 자연미와 비교하여 생활 속 아름다움이 자연에서 온 것을 체험하게 된다. - 구상작업을 통해 생활 속 미적역할과 가치를 체험하고 읽을 수 있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술의 변천에 따른 각 시대의 국가 경제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 각 시대의 기물의 형태와 문양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이해로 각 시대의 생활 속 체험을 통해 현재의 생활 속 이야기를 이해하는 매개체가 된다. 	

<표-7> 지평선 중학교 2006학년도 -3학년-

과목 구분	미 술	흙내음 역사 이야기
단위	34 (1)	34 (1)
주제	너와 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으로의 여행	
풀어가는 주제	세상 속 나의 미술로의 여행 (추상작업 및 자유표현)	
학습목표	나의 언어 표현 된 작품으로 세상과 만나기	
학 습 내 용	미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 - 선조들의 토기, 도기, 자기를 만들어 봄으로 교감을 나눈다. -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는지에 대해 체험하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에 있는 심상의 세계를 모방표현해보기 - 자신의 심상세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하기 - 자신의 심상 세계와 유명작가의 작품세계와의 만남으로 세상 속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 그릇이 아닌 조각으로 도자기를 표현하기 - 나의 언어로 된 작품을 표현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작가가 표현한 심상의 세계에 대해 감상하기 - 자신의 심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기 - 다른 학생들이 표현한 심상의 세계에 대해 차이를 이해하고 타인의 세계를 인정하고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기. - 나의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역사에서 보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본다. - 사회 속에서 나의 작품으로 소통하기

기대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으로 경험 할 수 있는 심상의 세계를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 추상작업에 대해 이해를 가질 수 있다. - 심상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움”이란 어떠한 가치기준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 미술수업을 통해 세상 속에서 미술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됨으로 중학교 수준에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모태가 된다. - 심상의 세계와의 만남으로 심화학습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적 의미에서의 도자기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각 시대의 이야기를 알게 됨으로 박물관에 만나는 유물을 통해 교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역사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를 읽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 따라서 세상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세상과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	---	--

3. 스스로 미디어 스쿨

스스로넷 미디어스쿨¹⁸⁾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개관·운영하는 청소년 특성화 시설이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스스로넷(ssro.net)이 2001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안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스스로 미디어 스쿨은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며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찾아가길 희망하는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으로서, 2006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형 대안학교로 인가 받은 학교(학력 인정)이다.

미디어스쿨은 '자기 찾기', '함께 하기', '미디어 만나기', '기초 학력 증진' 등의 교과목 구성을 통해

- ①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는 탐구 과정
- ② 자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관계를 모색하는 표현 과정

18) www.mediaschool.co.kr-스스로 넷 미디어 스쿨 홈페이지

- ③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 과정
 - ④ 인턴쉽, 졸업식 준비를 통한 예비 직업체험 및 포트폴리오 제작을 수행하는 실천 과정 등 총 4학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또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16개 도시형 대안학교와 네트워크 하여 보다 나은 교육내용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2학기 수업 명 : 컬러브레인 (심리적 접근을 위한 교과)

교육목표

첫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술적 표현으로 발산하고 통합해 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재료, 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재료 등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경험하며 일반 재료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대리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셋째. 예술적 표현을 통해 소통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자신만의 소통언어를 만들 수 있다.

<표-8> 스스로 미디어 스쿨 2006학년도 2학기 수업일정

일정	학습목표	학습내용
1주 (2006/9/7)	OT, 닉넴 이미지 맵 구성	- 수업 오리엔테이션 및 개별 면담 - 별명을 통한 이미지 맵 구성- 부직포를 이용한 네컷만화
2주 (2006/9/14)	영화보고 캐릭터 만들고	- 단편 애니메이션이나 짧은 극영화를 보고 자신에 가장 흡사한 캐릭터를 찾아 캐릭터 재구성하기- 스킵 활용
3주 (2006/9/21)	습식 수채화	- 수채화 물감과 붓을 이용하여 느린 그림 그리기: 심신안정
4주 (2006/9/28)	현장체험학습 - 동 물원 옆 미술관	- 미술관 전시 관람 및 이벤트 워크샵 참여(아직 장소 미정)

5주 (2006/10/5)	추석연휴	휴강
6주 (2006/10/12)	낙엽과 나무	- 자연의 중심 재료와 학생들의 이미지를 중첩시켜보는 작업
7주 (2006/10/19)	생각퍼즐 맞추기- 우레탄 블록 퍼즐	- 자신의 생각 주머니를 꺼내 우레탄 보드를 활용하여 퍼즐 만들고, 자기 의사 표현하기
8주 (2006/10/26)	다다색색 만다라 판 화	- 만다라 문양을 테마로 한 목판화 제작 - 엽서크기/ 다양한 방법으로 찍어보기
9주 (2006/11/2)	신문지와 춤을	- 동작을 가미한 신문지 쇼!
10주 (2006/11/9)	빛과 그림자 :그림 자 인형 만들기	- 그림자 인형극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이용한 막대 그림자 인형 만들기 - 각자의 캐릭터를 살린 인형으로 구성
11주 (2006/11/16)	철사소년 구슬소녀	- 철사와 구슬을 이용하여 상징 조형물 만들기
12주 (2006/11/23)	손가락 인형과 함께 춤	- 손가락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친구생각- 가족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13주 (2006/11/30)	와이어를 이용한 조 명탑	- 크리스마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미니 전구, 철사 등을 이용하여 입체 구조물을 만들기. 주제는 '소망탑'
14주 (2006/12/7)	작은 책 프로젝트	- 각자의 개별 주제를 선정하여 엽서크기의 8쪽 매체북 제작
15주 (2006/12/14)	나의 성장 나무	- 자연물을 활용하여 나의 성장과정을 담은 나
16주 (2006/12/21)	전시 준비 및 나눔 모임	- 전체 학기 나눔 모임 : 전시 준비 및 학기 정리 모임

4. 마리학교

1999년 3월 신창호 훈장 이후, 2000년 2월 2대 황선진 훈장 아래 세시풍속과 풍물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등장하게 된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마리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리학교는 다른 대안학교에 비해 페인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반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벽화제작이라는 제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 중등학교와 마리학교의 벽화제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실제적인 수업진행의 여부이다. 일반 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수업시수에 대한 문제, 주변여건의 부족 등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마리학교에서는 일반 학교 건물의 외벽이 미술수업에서의 하나의 캔버스로 학생들에게 적극 제공된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재료사용의 차이이다. 교과서에서는 벽화란, 실외건물의 외벽에 장식되는 것이므로 비나 눈과 같은 자연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유성페인트로 제작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마리학교에서는 페인트뿐 아니라 아크릴, 아크릴에서도 수성, 유성 모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환경디자이너가 학교나 일반 건물의 벽면 또는 울타리 등을 채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변질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이 당연하며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마리학교의 경우는 학교는 단지 주변 환경을 예쁘게 꾸미는데서 만이 미술의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이라 함은 벽화 제작에 있어 사용되는 도구들의 특징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미술학습은 ‘변화무쌍한 자연변화에 대비한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을 단지 공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수성 아크릴로 작업했을 경우 그것이 ‘비’라는 자연의 영향으로 녹아 흘러내리는 현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

내해주는 길잡이이며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까지도 함께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일반 중등 미술교과서의 벽화수업과 마리학교의 벽화수업의 도입 부분은 동일하다. 차이점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료사용의 포괄적인 제시와 자연과의 상호소통이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마리학교 학생들은 단지 심미성에 기초를 두고 작품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술의 특성 또한 파악해 나가고 있다.

둘째, 벽화를 통한 봉사활동이다. 벽화수업을 활용하여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끄레모바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생활공간에 벽화를 그려주는 “러시아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이 다른 여러 대안학교의 모범이 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셋째,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미술재료가 생산되는 공장의 직접적인 견학이다. 견학을 통해 재료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표현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리학교 미술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한지 공장에서의 한지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재료인 한지의 제작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그곳에서 직접 한지를 이용한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의 마리학교 미술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활동을 제외한 미술교육에 관한 것이다. 다음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표현의 기법보다는 미술의 가장 기초적인 색의 특성과 그 특성을 살린 표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마리학교 2006학년도 1학기 교육계획표 수업 진행 계획표

주차	단원 / 주제	수업 목표	수업 내용
1	색의 기본	색을 분류 할 수 있다.	(1)무채색 / (2)유채색 (3)청색 / (4)탐색
2	색의 3요소	색상, 명도, 채도를 이해한다.	색상환과 색 입체 표를 보며 색을 알아본다.
3	색의 감정과 성질	색이 연상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비교, 관찰 한다.	예시물을 보고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해 본다. ex) 빨강-정열 / 파랑-바다 / 초록-자연
4	아름다움은 찾아야 보인다. (공통 1,2,3)	형태의 아름다움과 조형의 요 소를 알고, 빛과 색의 특징을 이해한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식물의 특정 부분을 살려 표현한다.
5	여러 가지 표현기법 1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해하 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재 료의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방법 -데칼코마니 -번지기
6	여러 가지 표현 기법 2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해하 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재 료의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재질, 재료 등의 효과를 살린 의도적인 표현 -모자이크 / -배틱
7	음악을 듣고 그리기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일어 나는 감흥이나 기분을 자유롭 고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리듬 감을 표현한다.	느껴지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5. 제천 간디학교

제천 간디학교¹⁹⁾는 97년 3월에 27명의 학생과 더불어 문을 연 비인가 대안학교로서, 단지 부적응아 중심의 학교는 아닌 오히려 탁월성과 봉사를 교

19) <http://gandhischool.org/> (제천간디학교 홈페이지)

육목표로 삼고 있다. 즉, 몸과 마음과 지성을 골고루 발달시켜 자아를 완성하고(자아실현)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곳으로서, 삶과 연관된 지식을 함께 나누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교과들, 가치관 교육, 자립능력을 길러 주는 노작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제천 간디학교에서의 미술은 삶 속에서 오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외부세계를 인식하며 소통하는 도구로써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을 일깨우는데 미술 교육에 초점을 둔다. 또한 다양한 코드의 문화현상을 이해, 분석하고 살아있는 풍부한 경험의 바탕 속에서 각각의 다양한 시선과 느낌을 통해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제천간디학교에서 추구하는 미술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감을 통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함으로서 소통(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며 창의성과 심미적 감각을 기른다.

둘째, 실생활속의 동기유발을 통해 유기적인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하여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감상을 통해 미적 감각을 익히고 가치와 미술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도록 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천간디학교 미술교육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수업이 모둠별, 개인별 학습으로 나뉘어 함께 진행된다는 점과, 둘째로 다양한 재료를 통한 체험과 표현, 이해, 감상으로 나누어 하고 또한 상호 연결이 되도록 추구한다는 점이다. 더해서 세 번째로는 각종 전시장 및 전통 문화를 직접 관람하는데 교수의 중점을 두고 있다.

<표-10>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2학기 회화, 감상 수업계획서

중학교 1, 2, 3 학년

월별	주차	학습내용	영역
8	1	오리엔테이션, 선긋기	학기 열기
	2	여러 가지 동세그리기(크로키)	느끼기
9	3	세밀화 그리기	표현
	4	원근감의 이해와 틀 깨기(사진)	느낌과 표현
	5	풍경화그리기	체험과 표현
	6	동양화 감상수업하기	이해하기
10	7	전시관 관람	체험하기
	8	전시관 감상후기 수업하기	보고 나타내기
	9	민화 관련 비디오 보기와 따라 그리기	이해와 표현
11	10		
	11	다양한 재료로 자유 구상	상상하고 표현하기
12	12	서양 미술 감상수업	이해하기
	13	전시관 관람	체험하기

<표-11>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2학기 1, 2, 3학년 창작. 전통공예

월별	주차	학습내용	영역
8	1	오리엔테이션	학기 열기
	2	전통공예(전통 매듭 익히기)	이해하기
9	4	매듭공예	만들기
	5	매듭공예	만들기
	6	장신구 만들기	응용하기
10	7	모빌 만들기	응용하기
	8	점토 공예(들꽃 채취)	구상하기
	9	한지공예	만들기
11	10	스텐실	구상하기
	11	스텐실	만들기
	12	재활용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만들기
12	13	교과 발표회준비	학기 마무리

이뿐 아니라 제천간디학교에서는 기본 미술수업이외에 특정 수업을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 진행되는 것이 천연염색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염색수업 역시 일반 중등미술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중등학교에서는 천연재료를 사용

한 염색이 그 공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재료가 지닌 성질의 다양성으로 색의 변화가 심하며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해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다양한 천연재료들이 염색을 했을 때에 어떠한 색을 내는지에 대해서만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쪽두서니는 빨간색, 치자는 황색, 쪽은 청색을 나타내는 색으로 현재 일반 학교 학생들은 이를 하나의 암기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실제 중등학교에서의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이를 직접제작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1학기에는 각각의 재료를 활용한 염색수업을 통해서, 2학기에는 이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제작한 소품들을 교내에서 직접 전시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미술수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전체 과정에서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더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과 친구 작품과의 비교 감상을 통해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천간디학교 천연염색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성 염료를 통해 전통적이고 자연스런 색감을 알아본다.

둘째, 옷감과 염료의 특징을 알고 염색의 전 과정을 체험하여 본다.

셋째, 직접 천연염색을 해봄으로 자연과 조화되어 발색되는 색감과 전통의 색을 알고 풀, 꽃, 열매, 뿌리, 흙 등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생태적이고 자립적인 삶의 기초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표-12>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1학기 주별 수업내용 -1, 2, 3 학년-

월별	주별	수업내용	시간
3	1	오리엔테이션	2
	2	염색이론 및 의견듣기	2
	3	매염제 만들기	2
5	4	지초염색	2
	5	황벽	2
	6	씨앗뿌리기(매리골드, 쪽)	2
	7	쭉 염색	2
6	8	황토염색	2
	9	꼭두서니	2
	10	대잎 염색	2
7	11	교과발표준비 및 평가	2

<표-13> 제천 간디학교 2006학년도 2학기 주별 수업내용 -1, 2, 3 학년-

월별	주별	수업내용	시간
8	1	오리엔테이션	2
	2	염색이론과 염색하기(매리골드)	2
9	4	춌	2
	5	무궁화	2
	6	감물(무늬염 염색하기)	2
10	8	밤피	2
	9	붉 나무	2
	10	홍화	2
	11	창작염색	2
11	12	소품 만들기	2
	13	소품 만들기	2
	14	소품 만들기	2
12	15	교과발표회준비	2

여러 대안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교육은 각각 학교의 미술 프로그램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지식위주의 교육이나 실기력 향상, 점수에 연연한 수업이 아니다. 대안학교는 학생들과 실제 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활동

을 지향하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미적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주변 생활 안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여 보다 능동적인 심미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의 다섯 대안학교 미술수업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작을 중심으로 한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이다. 대안학교 미술수업에서는 지식 그대로를 학생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의 체험을 통한 이해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미술교육은 단지 표현중심의 미술이 아닌 이해와 감상을 통합한 미술교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술은 미술이라는 교과를 넘어 역사, 사회, 노작 등의 통합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간상을 길러내고 있다.

둘째,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미술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다른 학생들과의 협동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서로의 장점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통해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길러나간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 속에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창조인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나, 미술관, 박물관등의 관람에 적극적이다. 현재 일반 중등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이 진행되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미술 감상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그 작품에 관련된 다양한 해설이나 평론 등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직접 가서 감상하는 것에 비해 작품의 실제적인 크기나 표면의 질감, 작가가 의도한 흔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이 미흡하여 생생한 감상이 부족한 점을 단점

으로 들 수 있다.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지각을 보다 넓혀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회, 미술관, 박물관등의 관람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장점은, 표현위주의 미술수업을 지양하고 복잡 다양해진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과 학생들의 호기심과 성취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미술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 한다.

V. 중등학교에서의 대안학교 미술 프로그램

활용 방안

대안학교의 미술교육은 실생활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과 전시장 또는 박물관 관람을 통한 경험과 이해, 감상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교육은 크게 ‘이해’,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미술을 단지 손으로 하는 표현의 기술뿐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에 표현을 더 함으로서 미술교육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이 대안학교의 미술프로그램 속에서는 균형을 맞추어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 중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표현’영역에만 치우쳐져 있어 ‘이해’와 ‘감상’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대안학교 중 지평선 중학교에서는 ‘흙내음 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고유의 토기, 도기, 등을 단순한, 정형화된 감상에서 벗어나 직접 제작해 봄으로서 이해와 감상, 표현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달구벌 고등학교’와 ‘제천 간디학교’에서는 미술관 관람을 통한 감상수업이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안학교의 유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일반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직접 체험을 통한 감상교육

“미술, 미술작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맞는 거지?” 이러한 것이 현재 미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나도 모

르는 사이에 어떤 틀에 맞추어져 ‘이것은 이렇게 보아야 해’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술작품을 볼 때 고상한 또는 웅장한 거기에서 어떤 높은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오히려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통한 감상교육’에서는 이제까지 일반학교에서 진행되던 정형화된 감상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체화된 참여적 감상태도를 갖게 하여 작가와 감상자의 거리를 좁힘으로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을 선택하여 김홍도의 작품을 단순히 정형화된 방법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활동과 학습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감상해 보고자 한다.

▶ 학습의 구성 (3학년 대상)

차시	중심 활동	내용	학습형태
1,2 / 8	모듬나누기 감상문 작성	모듬나누기 수업안내(수업의 취지 및 과정 안내) 역할 및 준비물 분담 주제부여 및 이에 따른 직관적 감상, 토론	모듬학습
3,4 / 8	역할놀이 사진촬영	역할놀이 사진촬영 및 기록	모듬학습
5,6 / 8	1차 모듬토론 2차 모듬토론	사진출력, 분석, 토론하기 원화와 재구성 비교, 분석 및 모듬 발표	모듬학습
7,8 / 8	에세이 작성	에세이 작성	모듬 및 개별 학습

1차시- 모듬나누기 및 수업 안내

1) 모듬나누기(4모듬으로 구성)

원화에 등장하는 인물 수에 따라 모듬 인원을 다르게 편성한다.

무동(2모듬) - 그림 중 인물 7명, 촬영 1명

서당(2모듬) - 그림 중 인물 11명, 촬영 1명

2) 이 수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표 및 수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2차시- 역할 및 준비물 분담과 감상문 작성

1) 역할 및 준비물 분담하기

각 역할에 알맞은, 잘 어울릴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데 이때 작품인물의 체구나 인물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고 각 역할에 필요한 소품과 준비방법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홍도-무동-	의복: 장삼자락을 대체 표현할 수 있는 천(수건, 한지, 전지종이를 구겨서 제작할 수 있다.)과 모자(두꺼운 종이를 만들어 모자의 형태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악기: 장구, 목, 단소, 바이올린 등...
김홍도-서당-	의복: 장삼자락을 대체 표현할 수 있는 천(수건, 한지, 전지종이를 구겨서 제작할 수 있다.)과 모자(두꺼운 종이를 만들어 모자의 형태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책: 학생들의 교과서를 직접 활용한다. 그 밖의 소품: 책, 회초리, 작은 책상이나 찻상 등

2) 감상문 작성

김홍도의 '서당'작품을 보고 난 후, 그림의 첫인상, 주제를 생각하며 직관적인 감상문을 작성해 본다.

3차시- 역할놀이 마당 설치 및 역할 놀이

1) 역할놀이 마당설치

이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가 미리 공간을 확보해 두도록 하고 적당한 크기에 각 모듬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모듈별 역할 놀이

복사된 원화지를 바탕으로 모듈별로 모여 역할에 따른 상황 연출을 연습하고 역할에 따라 위치를 잡도록 한다. 이때, 원본 그림과 비슷하면서도 실제상황에 비추어 어색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4차시 - 사진 촬영

1) 모듈별로 순서를 정해 모듈장이 사진기로 촬영하고 학습지에 촬영위치와 높이 거리등을 기록해 주도록 지도한다.

1, 2차 촬영 - 실제상황에 비추어 어색하지 않도록 배치한 후 촬영한다.

3차 촬영 - 실제상황을 무시하고 원화와 같이 보이도록 배치한 후 촬영한다.

2) 서로 돌아가며 촬영 위치에 서서 원화와 다른 점을 찾아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5차시 - 1차 모듈토론 : 사진출력, 분석, 토론하기

촬영한 사진을 학습지에 편집하여 출력하고 모듈 간에 스케일, 인물배치, 인물간 거리, 얼굴과 시선 등이 원화와 일치하는지 분석, 토론하여 원화와 상황 연출사진을 비교하여 공간감 또는 인물 간 거리 차에 대한 다른 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 역시 학생 개개인의 학습지에 토론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6차시 - 2차 모듈토론 : 원화와 재구성 비교, 분석 및 모듈 발표

1) 모듈토론

5차시에 진행한 토론 자료를 토대로 원화와 재구성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고 사진은 그림과는 달리 어느 정도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된 화면 구성이 가능함 또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둠발표

토론결과를 모둠 장 또는 모둠원이 원화와 촬영사진 등의 모둠토론 내용 등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7차시-에세이 작성

7차시에서는 학생스스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작성해 보도록 한다.

첫째, 김홍도 작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 수업활동 중 가장 좋았던 점, 고칠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고 원화와 실제상황처럼 재구성한 장면과 원화와 가깝게 보이도록 재구성한 장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작성해 보도록 한다.

둘째, 작가의 시점과 감상자의 시점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한다.

셋째, 인물 하나하나의 사실성과 전체상황의 사실성과의 차이점에 대해 작성한다.

넷째, 작가의 표현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이와 비슷한 다른 작품의 사례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위의 감상 수업은 일반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45분이라는 시간을 바탕으로 제시한 학습지도안으로서 분절적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한 학기에 김홍도의 감상수업만이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체험적 미술 비평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편의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다. 더해서 모둠별 학습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향상시킴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사회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길러질 수 있고 수업 중간

중간에 토론이 함께 진행되므로 미술작품에 대한 언어능력의 향상과 학생 자신의 미적 지식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술관 관람을 통한 시각 확장 교육

미술관을 이용한 감상학습의 과정은 크게 ‘미술관 감상을 위한 사전학습’과 ‘미술관에서의 현장학습’, ‘미술관 관람 후 사후학습’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으며 미술관 관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미술관에 관한 정보의 사전 조사
교사는 교육목적에 맞는 미술관을 사전 답사 하여 전시작품의 해설과 모형 작품, 포스터, 배치도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여기서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사전 자료를 토대로 교육계획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수립
미술관 관람 교육의 진행을 학교에서의 사전교육, 미술관에서의 현장교육, 학교에서의 사후교육으로 나누어 수립해야 하며, 학습자의 감상능력수준과 시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체험적인 감상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미술관 교육의 당일 일정과 학습도우미를 결정하고 학습자를 위한 감상 학습지, 감상 순서도, 가정 통신문을 제작해야 하며 관람 일시와 참여 학생 수, 관람 소요 시간 등을 미리 미술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사전 준비사항이 끝난 뒤에 본격적인 미술관 관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 학습의 구성

차시	수업내용
1/3	학교에서의 사전교육
2/3	미술관에서의 현장교육
3/3	미술관 또는 학교에서의 사후교육

1차시- 학교에서의 사전교육

1차시는 미술관 방문 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이다. 교사는 미술관 학습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통해 전달시킴으로서 미술관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미술관의 책자를 활용하여 방문할 미술관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시책자 등을 이용하여 전시내용에 대한 사전조사와 주제를 설정하고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관람 계획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 학생들 스스로 전시회 관람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관람할 전시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한다. 이후,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서로 토론해 보는 수업을 가지도록 한다.

전시회 관람 계획서			
년	월	일	제 ()학년 ()반 이름()
전시회 제목 :			
1. 미술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미술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3. 어떤 전시를 관람할 까요?			
-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 자신이 선택한 전시			
- 전시를 택한 이유			
4. 전시장에서 지켜야할 예절은 무엇일까요?			

2차시- 미술관에서의 현장교육

2차시는 미술관에 입장하여 전개되는 미술활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슨트²⁰⁾나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감상하는 개별 또는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

1차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해 스케치, 감상 기록지 작성, 부분 또는 전체적인 감상 등의 다양한 감상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20)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의 여러 특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

하며 이와 함께 미술관에 있는 팜플렛이나 비디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또는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도록 한다. 1차시에서 조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본 작품들을 찾아보고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 조사, 감상한 작품들과 실제로 본 작품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며 감상해 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미술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아보고 보다 더 심도 있게 감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술관에서의 현장교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시장의 동선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진촬영이나 소음, 작품훼손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지나치게 가까이서 감상하는 것보다 조금 뒤에서 감상하는 것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차시 수업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감상 기록지는 다음과 같다.

감상 기록지	
년	월 일 제 ()학년 ()반 이름()
감상일시	
감상한 장소	
감상한 작품 제목	
작가 및 제작년도	
감상동기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인상	
작품의 주제와 제작의도	
작품의 표현특징	
작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용구, 기법의 특징	
작품이 나에게 준 의미나 생각	
하고 싶은 이야기	

3차시- 미술관 또는 학교에서의 사후교육

3차시는 미술관 감상활동이 이루어진 후 토론이나 발표 등의 언어화 과정을 위해 미술관에서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이 활동은 학생의 감

흥이 가장 큰 감상활동이 끝난 직후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별이나 그룹별로 조사한 작품이나 작가를 감상 기록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며 미술관 관람 후 미술전시에 관한 전체적인 느낌을 감상문으로 쓰도록 지도한다. 이때, 2차시의 미술관 현장학습 시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감상을 했을 경우, 한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담긴 감상문 및 그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학생들이 느낀 바를 직접 작품으로 표현해 보도한다. 이후, 이를 모아 학교 자체적으로 학기가 끝날 시점에 전시회를 열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3차시에서 제시 될 수 있는 전시회 관람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전시회 관람 보고서	
년	월 일 제 ()학년 ()반 이름()
일시, 장소	
전시회 제목	
전시 작품과 작품 분류의 기준	
미술관과 전시실의 특징	
감상 소감 및 참고자료의 첨부	

이러한 미술관 관람 학습을 통한 장점으로,

첫째, 일반 학교에서의 미술교육과 감상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미술관을 학생으로 하여금 평생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둘째, 폭넓은 미술문화에 대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공교육과 사회문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교육의 발전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미술관에서 경험하는 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열린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이

다. 때문에 미술관에 의해 제시되는 해석적 방식과 장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통합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²¹⁾

21) 김은영(2000), 박물관 체험향상을 위한 해석기능의 확장. 박물관 학보 3. 한국 박물관학회. p.222

VI. 결론 및 제언

미술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세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향유하는 활동으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현대의 사회는 다양한 시각문화에 둘러싸임으로 인해 시각문화의 해석과 비판적인 수용, 창의적인 활용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각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비디오 등의 미디어의 등장은 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문화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서의 역할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생활주변의 시각기호를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은 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주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미술교육은 시각적 문화로의 변화에 부흥하지 못하고 생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서있다.

미술교육은 사회,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나아가 생활 속에서 미술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의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의 일반 중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변화에 발전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의 환경 개선이다.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부터라도 다양한 표현활동에 적합한 교실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 회화작품만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과 함께 입체작품을 보관하고 실제 전시가 가능한 기본적인 공간이 제시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적체험과 다양한 미술품을 감상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술과는 과학실이나 컴퓨터실과 같이 전문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국가차원에서의 미술용품의 보조이다. 일부 몇 학교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은 미술과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미술품의 재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재료를 갖추는데 있어서도 시간적 낭비와 재료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많다.

셋째, 미술교사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 1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미술수업시간에 대한 미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학교에서 미술교사는 미술을 단순한 시각으로 보거나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가 과거 학교 다닐 때 학습된 미술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에 있어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 자기장학과 교사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 자신이 교육자라는 윤리적 인식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프로그램은 미술교육이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 효율인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선행조사와 함께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은 생활과 전통, 문화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안학교의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여 일반 중등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 감상과 활동, 표현이 통합되어진 미술교육이 학습자의 감각적인 체험으로부터 관계를 인식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두었다. 또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는 가치판단의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일반 중등학교에서 진행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성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앞으로 미술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논문에서 제시된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미술교육이 교육현장에 활용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민들레 편집실 (2005) 「대안학교 길라잡이」, 민들레
- 강대중 (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민들레
- 정유성 (1997)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박휘락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 김정희 외 (2003)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 김 정 (1997) 「미술교육의 모든 것」, 예경
- 이규선 외 (2005)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이상주 (1997)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 교육과학사
- 이기문 (2001) 「새로운 학교풍경」, 아침이슬
- 로웬펠트, 브리테인 (2004)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 김영호 (2004) 「예술교육이 미래를 연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김춘일 (2002)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 이건만, 박진환 (2002) 「Paulo Freire와 대안학교의 교육사상 탐구」, 문음사
- 심성보 (1998)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Elliot W.Eisner (1999) 「학문기초미술교육운동」, 학지사

<정기간행물>

- 김인규 (2003) 「미술교육의 위기의 본질과 대안」, 예술과 교육 제 9집
KICE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 「미술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KICE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2) 「미술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연구」
박은덕 (2003) 「미술과 목표 및 내용체계의 방향」 미술교육논총
성완경 (2003) 「무엇이 위기이고 기회인가-디지털 시대의 통합적 조형교육
을 위한 현식 인식」, 미술교육자대회자료집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2003) 「미술교육 위기로부터 기회로」, 미술
교과 교육과정연구 워크숍 집중 토론
이성도 (2003) 「미술교육의 정당성과 인식의 전환」, 예술과 교육 제 9집
김은영 (2000) 「박물관 체험향상을 위한 해석기능의 확장」 박물관 학보 3.
한국 박물관학회.

<논 문>

- 노은경, 1999 「대안학교의 교육과 미술교육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
육대학원
박지숙, 2004 「대안학교 미술교육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
교 교육대학원
임지선, 2005 「대안학교의 사례를 통한 일반교육에서의 미술교육 개선방안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애리, 2001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숙명
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정혜성, 2005 「청소년의 미술관 체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
교 박물관·미술관학과 박물관교육전공

<인터넷>

<http://www.mindle.org/> - 민들레

<http://www.mediaschool.co.kr> - 스스로 넷 미디어 스쿨

<http://gandhischool.org/> - 제천간디학교 홈페이지

ABSTRACT

**A research of art education program for the students
using the alternative schools' teaching program**

Kim, Hye-Won

Dept,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University

Every human-being has own identity and ability. Education could support those things developed. However, today's education system is regarded only for a way of entering a university.

21C is called as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student who is studying at a class will be a heroin of the 21C. It would be face difficult, if they keep studying only for going a university.

An attitude test is being taken once a year 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attitude test is for giving more meaningful information to the students. The problem is that the test is just one of pre-made standard check system for mass students.

After the 6.25 war, 'Hurry up' was the only catch-phrase for being a developed country in short time. The aim of developing is growing the country's economy. Thus well made labor was the most important point. So school had to make the students as good worker better than develop their own identity and ability. This education system must have helped the economic growth but made the students as 'product of school'. These problems still affect these days education problems. For example, the education authority has found many un-fair apples at the 2005 SAT. after all, the school has given up their duty for the students. To lead art centered culture, art education has to have its own rules.

The 7th education system suggests 'Understanding, Expression and Impression' for art. However, many art teachers still criticize today's teaching way of art-just expression.

Opposing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and to solve those problems, the alternative schools have been appeared since 1990`s. they have introduced the answer of those problems and ask the right or the students. The alternative schools offer many different art programs with free of the students imagination.

In this treatise, I would like to find the better way of art education.

On the introduction, I have written the method of teaching art at the alternative schools and suggested the way of this research.

On the main discourse, first of all I have studied the purpose or art education and the differentiations between the manuals and the field.

Secondly, I have researched the cause of appearing the alternative schools and their curriculum.

Thirdly, I have studied the characters of art education system following the era.

Lastly, I have suggested the new method of art teaching.

On conclusion, I have defined the direction of developing art education and also suggested what the most important part of art education is.